

사나게 산

도요타시 북쪽 끝에 있는 사나게 산은 인기 있는 하이킹 명소이자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숭배되어 온 신성한 산이기도 합니다. 둥그스름한 산 정상(해발 629m)은 거의 모든 방향에서 보이기 때문에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식이자 주변 평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경외심과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나게 산에 대한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9세기경부터 사나게 산의 사면에는 신불 융합 신사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사나게 신사의 전신에 해당합니다. 사나게 신사는 남쪽 기슭의 본궁과 각 산의 동쪽과 서쪽 사면에 위치하는 동궁, 서궁으로 구성된 대규모 신역입니다.

주말에는 많은 등산객이 방문하며, 특히 산 중턱의 복숭아나무가 만개하는 봄과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인기가 있습니다. 사면에는 삼나무와 편백나무 외에도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모밀잣밤나무, 솔송나무, 가래나무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등산로는 2개 있는데 모두 사나게 신사의 본궁을 기점으로 합니다. 서쪽 코스는 히로사와 강을 따라 7개의 폭포를 보면서 서궁을 목표로 산 정상을 향합니다. 동쪽 코스는 동궁과 거대한 삼나무 숲을 지나 남알프스를 바라보는 능선으로 나와 산 정상으로 이어집니다. 두 코스 모두 큰 바위가 산재해 있는데, 배 형태를 한 바위와 개구리를 닮았다는 바위 등이 있습니다. 한 바위가 13.3km인 코스는 4시간 반 정도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서쪽과 남서쪽 방향으로는 나고야시 시가지, 지타 반도, 이세 만, 미카와 만 등이 보입니다. 북쪽으로는 옛 미노국, 오와리국, 미카와국의 국경에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해발 701m의 미쿠니야마 산(三國山)이 있으며, 맑은 날에는 하쿠산(2,702m)과 온타케산(3,067m)의 정상, 남알프스의 산들을 볼 수 있습니다.